교회의 회복

(토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교회의 신분 — 새사람

성경: 엡 2:15-16, 4:22-24, 골 3:10-11

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사람이다 — 엡 1:9, 11, 3:11, 2:15-16, 4:22-24, 롬 8:28, 딤후 1:9.

A.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가지시는 것이었다 — 창 1:26.

B.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사람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이것은 옛 창조물이 새 창조물에 대한 상징이자 예표라는 것을 의미한다 — 엡 2:15, 4:24, 고후 5:17.

C. 결국, 한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단체적인 사람이다. 한 새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의 목적을 성취한다 — 창 1:26.

Ⅱ. 한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창조되었다 — 엡 2:15-16.

A. 한 새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두 종류의 재료, 곧 구속받은 창조된 사람과 신성한 요소로 창조되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이 두 요소를 함께 두어 한 새사람을 산출하셨다.

B. 그리스도는 새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런 다음 옛사람을 십자가로 제하심으로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에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한 실체가 되게 하셨다 — 롬 6:6, 고후 5:17.

C.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새사람으로 창조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는 새사람의 요소인 신성한 본질이 없기 때문이다 — 엡 2:15.

1. 오직 신성한 본질 안에서, 그리고 신성한 본질만으로 우리는 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러한 본질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2. 그리스도 자신이 새사람의 본질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둘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다.
3. 한 새사람을 창조하는 데 사용된 본질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한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그러므로 한 새사람은 그리스도이다 — 골 3:11.

Ⅲ. 교회는 한 새사람이고, 이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우리에게는 어떤 입지도 없다 — 골 3:10-11.

A.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마 17:5, 골 1:18, 2:2, 17, 3:4, 10-11.

1.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분의 경륜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 골 1:18, 2:17.
2.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일해 넣는 것이다 — 갈 4:19, 엡 3:17상, 골 3:11.

B. 한 새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이 전혀 없으며, 타고난 사람을 위한 가능성이나 여지가 조금도 없다 — 골 3:10-11.

1. 한 새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만 계신다 — 골 2:17, 3:4, 11.
2. 한 새사람은 다만 그리스도, 곧 확장하시는 그리스도와 확대되신 그리스도이다.

C. 새사람은 유일하게 하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이다 — 엡 2:15, 골 3:11.

1.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새사람 안에서 아무런 몫도,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도리어 새사람에 대해서는 끝난 것이다.
2.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사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이다.

D. 우리가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침투되고 대치될 때, 한 새사람이 존재하게 된다 — 고후 3:18.

1. 새사람은 모든 타고난 차이점들이 제거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조성될 때까지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를 대치하시는, 모든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다 — 골 3:11.
2.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실 때까지 반드시 우리 안에 유기적으로 일해 넣어지셔야 한다 — 엡 3:17상, 갈 4:19.

E. 한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 골 3:11.

1.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한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시다 — 골 1:27, 3:11.
2.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기 때문에, 새사람 안에는 어떤 인종이나 국적이나 문화나 사회적인 신분을 위한 여지가 없다 — 골 3:10-11.
3.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라는 실재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고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살아야 한다 — 갈 2:20, 빌 1:20-21상.
4.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동시에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말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 골 3:11.
   a.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한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b.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지체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골 3:11.

Ⅳ. 우리는 여러 나라들에 있는 모든 지방 교회들이 한 새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 골 3:10-11, 4:15-16.

A. 모든 교회들은 단순히 각 지방에 있는 개별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한 새사람이다 — 엡 2:15-16.

1.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를 새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보다 이 땅의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한 새사람이다 — 엡 4:24.
2. 한 새사람은 단순히 개별적인 지방이나 개별적인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속한 것이다.

B. 주님의 회복 안의 교회들 가운데는 '나라들'이 없어야 한다 — 마 16:18, 살전 1:1, 롬 16:16하, 요삼 9-10.

1.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작은 '나라', 곧 제국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보다 우리는 한 새사람 안에 있기를 원한다 — 마 20:25-26상.

2. 교회의 건축은 한 새사람의 존재에 달려 있다 — 마 16:18, 엡 2:21-22.

C. 오늘날은 모든 지방 교회들로 구성된 한 새사람을 갖는 날이다. 한 새사람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다. 이것이 궁극적인 교회생활, 곧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우주적인 한 새사람일 것이다 — 골 3:10-11, 엡 4:24, 빌 1:20-21상.

Ⅴ.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한 새사람을 산출하는 것이다 — 엡 2:15, 4:22-24, 골 3:10-11.

A. 옛사람 안에서 분열되고 흩어진 것이 새사람 안에서 회복된다. 옛사람을 벗는 것은 분열되고 흩어진 사람을 벗는 것이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함께 모이고 하나인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 창 11:5-9, 행 2:5-12, 엡 4:22, 24, 골 3:10-11.

B.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는 한 새사람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 엡 3:17-19, 골 3:4, 10-11.

C. 모든 이들이 오직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지극히 높은 것이다. 한 새사람이 실지로 존재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야 한다 — 갈 2:20, 엡 2:15, 3:17상.

D. 한 새사람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모셔 올 것이다 — 계 11:15.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새사람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1:22-23),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며(2:19),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거처(21-22절)임을 계시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과 4장 24절에서 우리는 교회가 새사람임을 본다. 2장 15절은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라고 말한다. 4장 24절은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클레시아'이며,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 즉 회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첫 번째 방면이다. 이 방면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의 방면으로 계속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첫 번째 측면보다는 높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방면만큼 높지는 않다. 그러나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보다 한층 더 높다. 이와 같이 교회는 단지 믿는 이들의 모임, 하늘에 속한 시민들의 왕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몸만도 아니다. 교회의 최고의 측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새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어서 그 강조점은 생명인 반면, 새사람인 교회에 대한 그 강조점은 인격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새사람으로서의 교회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생명이 없는 몸은 몸이 아닌 시체이다. 그러나 몸이 움직일 때는 생명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인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새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단체적인 인격인 새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생활해야 한다.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재로서 깨닫게 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속한 새사람에 대한 그림이다. 이것은 옛 창조가 새 창조의 표상이자 예표임을 뜻한다. 하나님의 옛 창조에서 그 중심은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옛 창조와 새 창조 모두에서 그 중심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창 1:26) 그 후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셨다. 형상은 표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통치권은 표현의 문제가 아닌 대표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통치를 위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분을 대표하기를 원하신다. 옛 창조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창조되었으며 또한 그분을 대표하기 위해 그분의 통치권을 갖도록 창조되었다.

형상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의도를 말하며, 통치권은 하나님의 부정적인 의도를 말한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의도는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 하나님의 부정적인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 사탄, 마귀를 처리하는 것이다. 우주 안에 하나님은 하나의 문제, 즉 그분의 대적을 처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대적 마귀는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직접 그를 처리하지 않고 그 대신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사람에 의해 그를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대적을 처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으셨다. 긍정적인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이다.

옛 창조 안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땅에만 국한되었다. 이것은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것이 땅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통치권은 온 우주로 확대되었다.

결국,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셨으며 옛 창조 안에서 그분은 실재를 가진 사람이 아닌 하나의 표상, 곧 예표를 창조하셨다. 실재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해서 창조하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새사람이라고 불린다.

'새사람'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상기시켜 준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있는 새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두 방면의 목적을 완성한다.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됨

에베소서 2장 15절은 새사람인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계시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이 인성 안으로 일해 넣어진 한 새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행동은 새로운 것이었다.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어떤 피조물 안으로도 일해 넣지 않으셨으며 사람 안으로도 일해 넣지 않으셨다. 그러나 한 새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 안으로 일해 넣어져 그분의 본성을 인성과 한 실체가 되게 하셨다.

새 창조는 옛 창조처럼 개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어떤 것이다.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수백만의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 반대로 모든 사람을 포함한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새 창조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하다. 새 창조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구성된 새사람인 교회의 부분들이다.

새 창조물과 옛 창조물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옛 창조물 안으로는 일해 넣어지지 않았으나 새 창조물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소유한다. 비록 옛 창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존재했다고는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께서 옛 창조물 안에 거하지는 않으신다. 따라서 첫째 창조물에는 신성한 내용이 없다. 신성한 본성은 옛 창조물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옛 창조물은 낡아진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본성을 갖지 않았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으로 거듭날 때에만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를 새 창조물이 되게 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이다. 육체에 속한 옛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나갔으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과 본성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일이다(고전 1:30, 갈 3:26-28).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은 옛것들이 새 창조물로 기이하게 바뀐 것을 지켜보라는 부름이다. '옛것들'은 옛 창조물이다. 옛 창조물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믿는 이들로 구성된 새 창조물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요 1:13, 3:15, 벧후 1:4). 따라서 믿는 이들은 육체에 속한 옛 본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새로운 본성에 따라 새 창조물이다.

새 창조물은 사실상 옛 창조물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것이다. 옛 창조물이 낡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옛 창조물의 일부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반면에 새 창조물이 새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물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분의 새 창조물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 영으로 살고 행할 때에만 우리에게 실재가 된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행할 때마다, 우리는 새 창조물 안에 있지 않고 옛 창조물 안에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옛 창조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새 창조물의 부분이다.

우리가 새 창조물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한 연합이 없다면 우리는 옛 창조물 안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에 의해 우리는 새 창조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물이 되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옛 창조물 안으로 태어났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물 안으로 거듭났다. 여기 새 창조물 안에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회중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배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새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할 그러한 사람을 원하신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옛 창조 안에서 창조되어 옛사람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재창조되어 새사람이 되었다.

그분 자신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새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새사람인 교회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새사람이 창조된 영역이자 한 새사람을 창조하는 데 사용된 본질이심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새사람의 요소이시다. 우리 옛사람의 어떤 것도 새사람을 창조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전의 본질은 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본질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한 새사람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이 새사람은 단체적이며 우주적이다. 우주 안에는 많은 믿는 이들이 있지만 단 하나의 새사람만 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이 하나의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새사람의 구성 요소이다.

십자가에서

새사람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자신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 특별한 방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계셨을 때 새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한 새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 죽음 안에서 그분은 다양한 사람들을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은 새 창조물을 이루는 데 사용된 도구였다.

옛사람과는 달리, 새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 반대로 새사람은 옛사람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십자가로 데려가시어 그곳에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사실이 새사람이 옛사람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하나님을 따라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외적으로 창조되었다(창 1:26-27). 그러나 새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 자신을 따라 내적으로 창조되었다.

사실상 새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새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결국 새사람은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것이다.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사람이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의(義)란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옳은 것이다. 여기에서 '거룩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로마서 12장의 '거룩하고'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독실한 것을 가리킨다. 의는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인 반면, 거룩함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의와 거룩함이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가리킨 대로 인성 안에서의 예수님의 생활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들을 말한다. 새사람은 이러한 두 방면들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다.

새사람의 의와 거룩함은 '실재'에 속한다. 24절에서 '실재' 앞의 정관사 '그'는 강조형이다. 옛사람과 관련된 22절의 '속이는 것'이 사탄의 인격화이듯이 새사람과 관련된 여기에서의 실재도 하나님의 인격화이다. 이 실재는 21절에 언급된 대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전시되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실재의 의와 거룩함이 항상 나타났다. 하나님은 이 실재의 의와 거룩함 안에서 실재화되고 표현되시며, 바로 이러한 실재의 의와 거룩함 안에서 새사람이 창조되었다.

딘 알포드(Dean Alford)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실재는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재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22절에 언급된 그 속이는 것의 욕정과 대조를 이룬다. 속이는 것은 거짓말쟁이인 사탄의 본질이고, 실재는 실재이신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욕정은 속이는 것인 사탄에게 속한 반면, 의와 거룩함은 실재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빈센트(M. R. Vincent)는 이 구절에서 속이는 것과 실재가 의인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의 두 방면인 의와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다.

24절에서 의와 거룩함과 실재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된다.

그러므로 의는 그리스도이고, 거룩함이 그리스도이며, 실재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새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과 실재이신 그분 자신 안에서 이것을 하셨다. 이것은 놀랍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다 체험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속성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따라 이 모든 속성들이신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모형이자 틀이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창조의 일을 하셨을 때 우리를 그분 자신 안에서 지으셨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실재를 지니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고 있다고 말한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체현이시다(골 1:15, 2:9).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사랑과 빛이 충만한 사람이셨다. 이것은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오늘날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즉 새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빛을 지니고 있다.*(신약의 결론, 교회, 282-287, 291-293쪽)*